"함께하는 것만으로 행복하네요"

영화감독 정초신의 즐거운 나눔 이야기

글 / 전 흥 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나눔과 관련된 일은 대부분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6년 넘게 나눔과 함께해온 필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나눔은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이러한 나눔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여겨 어렵고 힘든 일로 느끼는 것같다. 영화감독 정초신을 만나 '나눔은 흥얼거리는 콧노래같이 즐겁고 일상적인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

공동모금회와 천사들이 함께하는 나눔

공동모금회는 올해 초부터 '당신2004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천사'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다. 지금까지 찾아간 6명의 나눔천사는 장서희씨, 양미경씨 등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엔예인들이다. 공인인 그들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분들은 자신의 출연료 일부를 기부하거나 자신의 저서 인세수익금 전액을 내놓기도 하고, 결혼축의금을 전해주기도 했다. 어렵고 힘든 삶을 꾸려가는 이웃들에게 그래도 세상 어딘가에는 누군가가 당신들을 생각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준 것이다. 6명의 천사들이 이루어낸 이 뜻깊은 나눔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데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정초신 감독의 가볍고 발랄한 나눔

얼마전 만난 정초신 감독의 나눔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조금 특별하다. 정감독은 자신의 표현대로 '발칙하고 깜찍하게' 청소년들의 성적 환상을 그려낸 영화 '몽정기'를 만든 젊은 감독이다. 정감독이 '나눔'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우연히 접한 신문기사를 통해서다.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가 참으로 소중한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정감독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곧바로 전동휠체어를 만들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자신이 평소 쓰던 물건을 비롯해 외국에서 사온 기념품 등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촬영한 후 블로그에 올려 경매에 부친 것이다. 실시간 인터넷중계까지 하면서 진행된 3시간의 나눔 경매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너'와 '내'가 한데 어울려 만들어낸 즐거운 '난장판'이 되었다고 한다. 경매를 통해 낙찰된 물품은 정감독이 일일이 주소를 적고 감사의 편지까지 넣어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한 블로그 지인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함께 음식을 나누며 물건을 전해주는 색다른 만남의 장까지 마련했다.

큰 나눔보다 더 값진 일상적인 나눔

"1억8천만원이 아니라 대단히 아쉽다"며 공동모금회에 전해준 성금은 180여 만원. 하지만 그 안에는 즐거운 나눔을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들어 있었다. 값진 성금이었다.

"목표 달성 못했으니 2차 경매를 하자"는 지인들의 성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줍게 웃던 정감독. 사진기자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면 오히려 이상하다"며 큐사인까지 날리던 재치꾼 정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나눔이란 것이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천고마비의 계절,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즐겁고 뜻깊은 가을이 되기를 바란다.